

# “1년간 1만4000명·2만6000건 맞춤형돌봄 지원”

##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1주년 사회적 돌봄 이슈 전국서 벤치마킹 올해 시군2 추진 ‘관계돌봄’ 중점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4월1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한 해 동안 3만건의 가정방문, 1만3871명에게 2만6000건의 맞춤형돌봄을 지원, 그 어디에도 없던 혁신모델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을 개인이

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라고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최일선 행정 현장인 자치구를 비롯해 민간, 시의회 등과 15차례 협의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특정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이용하도록 했다. 가족, 이웃 누구라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신설했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이나 은둔·고립 1인 가구 시민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지 먼저 살핀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되면 동행정 복지센터에서 ‘1대 1 케어매니저’를 지정

한다. 이들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계획, 서비스 기관에 일괄 연계한다. 의뢰받은 민간기관이 전문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존 돌봄이 제공하지 않는 13종(자치구 특화사업 포함 27종)의 서비스를 신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연간 107억원을 투입해 비용을 지원한다.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시·자치구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설치(담당인력 44명)하고, 96개 동에 케어매니저 336명을 지정했으며,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59곳(840명)을 선정했다.

행정과 민간의 협업 체계를 원활히 운

영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전산화한 ‘정보 시스템’도 지난해 7월1일 개통했다.

수혜자도 엄청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용자는 지난 1년간 1만4000여명에 이른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자 전국의 지자체들과 학계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 광주 모형을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도 강릉과 진주 등 기초지자체에서 광주를 찾고 있고, 4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단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세계도 주목했다. 지난해 12월7일 전세계 24개국 도시가 가입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주관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2년 차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개인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을 지향한다.

이에 지난달 27일 동구 대인동에 쪽방촌 ‘들랑날랑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서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돌봄 교실’, 남구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북구 ‘우리동네 건강마을돌봄’, 광산구 ‘마을 밥카페’와 ‘건강관리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 소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 “차단 방역에 철저”

전남도가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파리 등 매개곤충의 본격 활동기를 앞두고 4월1일부터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19일 국내에서 첫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11월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의 면역력 유지를 위해 1년 이내 추가 접종이 필요해진다 따른 것이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10월 국내 첫 발생 이후 11월20일까지 전남 2건을 포함해 전국적

으로 107건 발생했다.

전남도는 4월 중 2023년 럼피스킨이 발생한 무안, 신안과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 시·군으로 평가된 함평과 영광에서 사육하는 14만3000마리를 접종할 방침이다.

50마리 이상 전업규모 농가 사육 소 9만5000마리는 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을 하고,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의 4만8000마리는 4월30일까지 공수의 등으로 편성된 접종지원반(22개 반 81명)이 접종을 지원한다.

나머지 시·군에서 사육하는 소 50만9000여마리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기회발전 특구 투자 협약식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최인호 (주)한양 대표이사, 성백석 린데코리아(주) 회장, 안영훈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주) 대표이사, 제스퍼 하이켄스 ECOLOG 최고사업책임자, 이경진 모도열병합(주) 대표이사 등이 지난달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기회발전 특구(여수 모도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 협약식’에서 3조9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유물 공개 구입

전남도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공개 구입하기로 하고 기증·기탁자 모집에 나섰다.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 4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의병 유물 매매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 구입에선 활, 화살, 포, 화약통 등 무기류와 의병 관련 서화류나 민속품 등에 집중한다. 시대는 을묘왜변(1555년)부터 3·1운동(1919년)까지다. 매도를 원하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유 관계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물 구입은 서류 심사 후 실물 심사를 거쳐 도난 여부 등

을 확인해 최종 결정한다.

도는 유물 구입 뿐 아니라 기증·기탁도 수시로 받고 있다. 그동안 수집된 기증·기탁 유물은 1585점(기증 383·기탁 1202)에 이른다. 정유재란 때 의병이 사용했던 검과 구레 화염사 의승군 지원 고문서 등 중요 유물도 포함돼 있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유물 기증·기탁은 박물관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실천활동”이라며 “유물 소장자나 매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국·충혼의 의병정신 선양을 위해 건립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나주 공산면 신곡리 일대 부지 36만㎡에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 전남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1300대 무상 지원

전남도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1300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5년부터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난해보다 830대 늘렸다. 지문 인식 단말기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

부터는 위치정보 제공 기능이 추가된 일반 단말기까지 지원한다. 일반단말기는 4만3000원, 지문인식 단말기는 11만2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전남지역 등록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 명의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최근 5년 안에 하이패스 단말기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영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 광주시, DJ센터 2전시장 규모 축소·변경 재추진 검토

### 지하 주차장 대신 지상·옥상 일부 시설 줄여 사업비 절감

공사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립이 중단된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제2전시장이 시설 일부를 축소·변경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체·인건비 상승·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설계 단계에서 중단된 DJ센터 2전시장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축소·변경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전시장 건립을 추진했다.

부족한 호남권 전시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김대중컨벤션센터 가동률이 70%를 넘어 포화 상태에 도달해 대규모 국제 마이스(MICE) 행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장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 2월 총 사업비 14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공사비가 1100억원 규모이다.

제2전시장 위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1주차장(1만8932㎡) 부지로 확정했으며 연면적 4만6000㎡·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전시장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본 설계용역을 추진했다.

제1·2전시장을 연결하는 통로는 국비 7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사자재와 인건비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건립추진 1년여 만인 지난 달 29일 용역 중단을 결정했다.

제2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30% 이상 상승한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기존 예산의 2배인 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시는 최근 재정악화 상황까지 겹쳐 늘어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기본 시설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지하 2층 규모로 계획한 주차장 건설을 취소하고 지상과 옥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7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시설도 축소·변경하고 공사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공법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예산으로 건립을 강행 할 경우 예상했던 규모의 절반도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예산도 줄여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을 증액할 수 없어 규모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뒤 용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올해 여성친화마을 8곳 선정

### 충장동 등 총 75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올해 여성친화마을 공모를 통해 8개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마을은 △동구 충장동 주민자치회(충장동 여성상인의 이야기 발걸음 통해 시대별

다양한 여성상을 기록) △서구 꿈꾸는 작은도서관(방과후 마을돌봄교실 운영과 아빠놀이지도 코칭) △남구 십시일반 나눔마을학교(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배움터 운영)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온마을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광산구 점담살롱 여문손(마을 주민이 쉽게 성평등 교육 접하도록 성평등 주제에 맞는 공예체험프로그램 운

영) 등 8곳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공개 모집, 성평등위원회 심의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8개 마을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마을에는 총 사업비 7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친화마을 8곳을 대상으로 마을활동 경험이 있는 전담 활동가를 배치, 맞춤형 상담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